2024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시나리오북

Scenario Book





국토교통부
춘천시
약사명동 도시재생지원센터
Yaksamyeongdong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약사 거리, 걸이 해설사
2024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시나리오북



약사 거리, 걸이 해설사

2024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시나리오북

contents

마을해설사 투어 준비

준비 및 해설사의 태도 04
투어 진행 준비물 05

코스 1. 약사명동 시간여행길

코스 설명 06
시작 08
집수리도서관 09
죽림동 성당 & 성 골롬반 의원 12
약사리 고개 16
약사리 공유공간 21
박수근 출근길 & 망대골목 벽화길 24
약사천 산책로 28
약사몽어 31
마무리 34

코스 2. 테라코타길

코스 설명 36
시작 38
집수리도서관 40
청년창업공간 43
어울림플랫폼 & 어린이작업실 46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 50
약사천 산책로 55
약사리 고개 59
약사리 공유공간 63
마무리 66

* 해당 시나리오북은 '약사리문화마을 마을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1기' 진행 시 도출된 매뉴얼북 내용을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

마을해설사 투어 준비

준비 및 해설사의 태도

1. 복장

- 도보코스인 만큼 간편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뽐내기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복장이 참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 자신에게 어울리는, 기억될 만한 포인트 소품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머리핀, 모자, 신발, 재미있는 액세서리 등은 참여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습니다.

2. 언행

-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개인적인 의견 및 정치적인 발언, 지역 발언 등은 참여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 아슬아슬한 농담, 성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농담은 자제해 주세요.
- 연령대가 낮더라도 반말을 가급적 조심해 주세요.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답니다.
- 사담, 욕설, 지나친 농담 및 자신의 이야기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3. 도보코스 특성

- 투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참가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솔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세요.
- 도보코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 '화장실', '쉬는 시간'입니다. 참여자의 동태를 잘 살피시어 적절할 때 화장실을 안내하고 쉬는 시간(자유시간)을 주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어 시작 시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 스팟 별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남녀 공용인지 파악하시어 안내해 주세요.
- 자유시간을 주실 경우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 '만남 장소'에 대해 미리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만나요, 저기에서 만나요, A씨는 여기에서, B씨는 가다가 만납시다 등등 지나치게 자유로운 정보는 참여자에게 혼동을 줍니다.)

- 손수건, 물티슈, 화장지, 위생봉투, 비상약 등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꼭 챙겨주세요.
-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체류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투어가 늘어지지 않도록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잘 체크해주세요.

※ 골목을 오르내릴 때 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꼭 안내해 주세요.
※ 투어 일정의 계절과 날씨를 확인하시어 상황에 맞게 안전한 인솔과 해설을 해주세요. (골목이 좁고 가파르니, 비 오는 날과 눈 오는 날 등 날씨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4. 시작과 종료 인사

- 아무리 좋은 투어도 시작과 마무리가 유쾌하지 않으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시작과 종료 인사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전문성과 투어의 완성도를 높여준답니다.

5. 투어 도중

-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의 정보, 심폐소생술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더불어 참여자를 세심히 살피어 불편한 곳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두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 중간에 신청자의 개인적인 용무(전화 통화, 사담 등)가 길어질 경우 밖에서 용무를 보거나, 가급적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어 투어의 집중도가 분산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세요.
- 마을의 환경/생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쓰레기 투기, 꽃 꺾기 등을 하지 않도록 살펴주세요.

투어 진행 준비물

- 투어 전, 거점공간 내부 방문 가능한 지 사전 연락
- 해설키트 착용(모자, 조끼, 가방, 마이크 등)
- 비상약, 화장지, 위생봉투 등
- 신청자에게 안내할 코스맵이 들어있는 리플렛
- 해설에 필요한 사진 자료
- 체험활동에 필요한 물품(스케치 엽서, 색연필)
- 투어 전 신청자에게 나눠 줄 물

※ 안전 수칙에 대해 필수적으로 투어 전, 투어 중에 주의 전달해야 합니다.

코스 1

약사명동 시간여행길

• 컨셉

약사명동 흔적을 따라 여행해보는 시간

• 운영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스팟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입혀 코스 운영

• 코스

① 집수리도서관 → ② 죽림동 성당&성 골롬반 의원 → ③ 약사리 고개 →
④ 약사리 공유공간 → ⑤ 박수근 출근길&망대골목 벽화길 →
⑥ 약사천 산책로 → ⑦ 약사몽어 → ⑧ 집수리도서관

• 소요시간

1~1.5km 내외의 거리로 약 80분 소요 코스

• 코스 설명

약사명동만의 마을 자원인 약사천, 약사리 고개와 죽림동 성당, 박수근 출근길 같은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는 지역명소를 함께 둘러봅니다. 각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들은 후, 함께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코스 지도



코스 1

① 집수리도서관 | ② 죽림동 성당&성 골롬반 의원 | ③ 약사리 고개

④ 약사리 공유공간 | ⑤ 박수근 출근길&망대골목 벽화길 | ⑥ 약사천 산책로

⑦ 약사몽어 | ⑧ 집수리도서관

0 시작. 집수리도서관

대기

개인 물 전달하면서 스몰토크 가볍게 진행하기
(거주 지역, 오는 길, 계절, 춘천에 대한 인상 등)

첫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약사명동 투어를 안내할 OOO입니다.
춘천에 오신 걸 환영하며, 춘천과 약사명동에 대해 짧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의 중심에는 봉의산이 있습니다. 봉의산은 봉황이 날아오르는 모양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봉황은 대나무 열매를 먹고살아서 주변에 대숲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죽림(대나무숲)동으로 내려와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98년 동사무소가 폐합되며 약사동, 죽림동, 중앙로 2가, 중앙로 3가가 약사명동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실 약사명동 시간여행길 코스에서 이런 다양한 지역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역사의 흔적을 살펴보려 합니다.

코스 안내

리플렛을 보며 소개해주세요.
구체적인 코스는 집수리도서관에서 출발하여 죽림동 성당과 성 골롬반 의원을 지나 약사리 고개, 약사리 공유공간, 박수근 출근길, 약사천 산책로와 약사몽어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집수리도서관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20분이니,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은 미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인원 확인 후 해설 시작)

늘어지지 않도록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준비물 코스 리플렛, 물

안내 시간 : 5분 내외

1 집수리도서관



<집수리도서관>

약사명동 도시재생을 통해
'녹색디자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통해 노후된 집들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수리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관련 공구 대여 및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곳이다.
집수리도서관은 1층에 다목적실과 탕비실, 2층에 교육공간과 공구 대여소,
3층은 사무실이 자리 잡을 예정이다.

출처 : 약사명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고서

해설 위치



집수리도서관 폴딩도어 앞쪽 잔디밭에 서서 해설해 주세요.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7분

장소 설명

집수리도서관은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전통적인 도서관이 아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집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집수리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화된 집수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수리도서관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층의 다목적실과 탕비실은 모임과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 교육 공간에서는 집수리 아카데미와 목공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공간에 필요한 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테라스에서는 주민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는 등 마을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약사명동은 오래된 구도심으로, 학군이 좋은 퇴계동, 온의동, 석사동과 달리 오래된 집들과 폐가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집수리도서관도 폐가를 새롭게 재생한 공간입니다.

혹시 '김청자'라는 소프라노를 아시나요? (잠시 쉬고)
김청자는 한국 성악의 전설인 소프라노로 불리며, 이곳은 김청자의 생가였습니다. 김청자는 춘천 출신으로, 춘천여중을 졸업한 후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피아노 레슨을 받고 성가대에서 반주를 하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는데요, 1970년에는 한국 성악가 최초로 유럽 무대에 데뷔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오페라의 본고장에서 25년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은 춘천의 역사적 상징이자 예술적 유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인 죽림동 성당으로 함께 이동하시겠습니다.

안내 시간 : 10분

2 죽림동 성당
+ 성 골롬반 의원



<죽림동 성당>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죽림동에 있는 주교좌성당이다.
2003년 6월 30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었다.
1949년 기공하였으나 한국 전쟁의 와중에 짓던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전쟁 후 다시 건축하여 1956년 6월 8일 준공하였다. 정문 가운데 종탑이 있는
고딕 양식의 석조 건축물로 건물의 폭에 비해 높이가 높고 내부는 별다른 기둥 없이
아치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출처 : 위키백과

해설 위치



성당으로 올라가기 전,
해설사가 계단 위로 몇 칸 올라가 참가자들을 바라보며 해설해 주세요.

장소 설명

죽림동 성당

저희가 지금 모여 있는 이곳은 죽림동 성당 입구입니다.
죽림동 성당은 춘천의 첫 천주교 성당으로, 초반에는 개인 집을 사서
성당으로 사용을 하였고 이후 약사리 언덕에 성당 터를 마련하여,
1949년 4월 5일, 6대 주임 구인란 신부가 죽림동 성당을 짓기 위한 기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6.25 전쟁의 발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53년 미군과 교황청의
지원으로 공사를 완공하였고 1956년 6월 8일 성당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1998년 4월 노후된 성당에 돌 벽채를 제외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작해서
1998년 9월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후 2003년 6월 25일, 건축미와
역사성을 인정받아 근대 건축 유산 문화재 제54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코스 안내

성 골롬반 의원

또 방금 함께 올라올 때 둥그런 나무가 있던 주차장을 기억하시나요?
그곳은 성 골롬반 의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1953년 죽림동 성당이 공사를 완공한 후, 1955년 11월 19일 의사였던
다비다 수녀와 간호사 필로미나 수녀가 춘천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기 위해 춘천으로 왔습니다.
성 골롬반 의원의 처음 시작은 작은 단층 건물의 나무를 떼는 온돌방이었고,
수녀들은 가정방문을 하면서 환자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다음 해 3월 임시진료소를 열어 무료 진료를 시작했고, 이듬해 10월에는
정식으로 '성 골롬반 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하루에 400~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11년 11월 30일에 성 골롬반 의원은 시대적 사명을 다한 후 폐원했지만,
폐원때까지 56년 동안 의료활동뿐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유,
옥수숫가루, 의류 등 국제원조 물품을 나눠주며 구호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5분

현재 의원 터는 성당의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진료를 했던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골롬반 수녀님들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성 골롬반 의원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5분 동안 죽림동 성당을 편하게 둘러보시고, 이 장소로 다시 모여주시면, 함께
다음 장소로 출발하겠습니다.

(5분 뒤, 모인 인원 확인 후)
죽림동 성당은 춘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있고, 인근에는
춘천의 명동과 육림고개가 있으며 가깝게 약사명동의 옛 골목을 구경할 수
있어 이후에 춘천을 다시 놀러 오시면, 죽림동 언덕 위에 우뚝 선 이 성당에
올라 멋진 경관을 구경하실 수 있도록 죽림동 성당을 한번 더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소인 약사리 고개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설 외 설명

예수성심상

죽림동 성당의 예수성심상은 2014년 6월 1일 제작한 것으로
높이 3.5m, 가로 3m의 청동 소재로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수성심상입니다.

해설 외 설명은 투어 시간 조절을 위해 해설사가 가감하면서 이야기
나눌 만한 정보들을 넣었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안내 시간 : 5분 내외

3 약사리 고개



<약사리 고개>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에서 죽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 고개의 우측에 한약사들이 길을 따라 한약방을 열었던 까닭에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되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약사동에서 죽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금은 2차선 도로가 나있다. 조양동의 마가리고개, 소양로의 사창고개와 함께 춘천의 유명한 고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

해설 위치



약사리 고개 옆 길에서 해설해 주세요.

장소 설명

약사명동의 대표 명소인 약사리 고개는 춘천시의 약사동에서 죽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약사리 명칭은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 고개에 한약사들이 길을 따라 한약방을 열어 약사원으로 불리기 시작했던 것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약사원으로 이름 불려지는 것을 시초로, 약사원, 약사리, 약사동, 약사명동으로 이름이 계속해 바뀌어 왔습니다.

현재는 이 고개가 2차선으로 도로가 나 있어 동네 골목의 고개라는 느낌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조양동의 마가리고개와 소양로의 사창고개와 함께 춘천의 유명한 고개였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인 약사리 공유공간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동 안내

약사리 공유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해 횡단보도도 건너고 오르막길도 올라야 하니, 안전히 보행해 주세요.

알고 계시는 마을 이야기를 추가해 더 풍성한 해설을 이어가 주세요.
신호등, 오르막길 조심하도록 주의 안내 !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7분

이동 설명

성 골롬반 의원 기념비

죽림동 성당에서 설명드렸던 성 골롬반 의원의 기념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6.25 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을 돌본 성 골롬반 의원 수녀들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 2021년 6월 25일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해설 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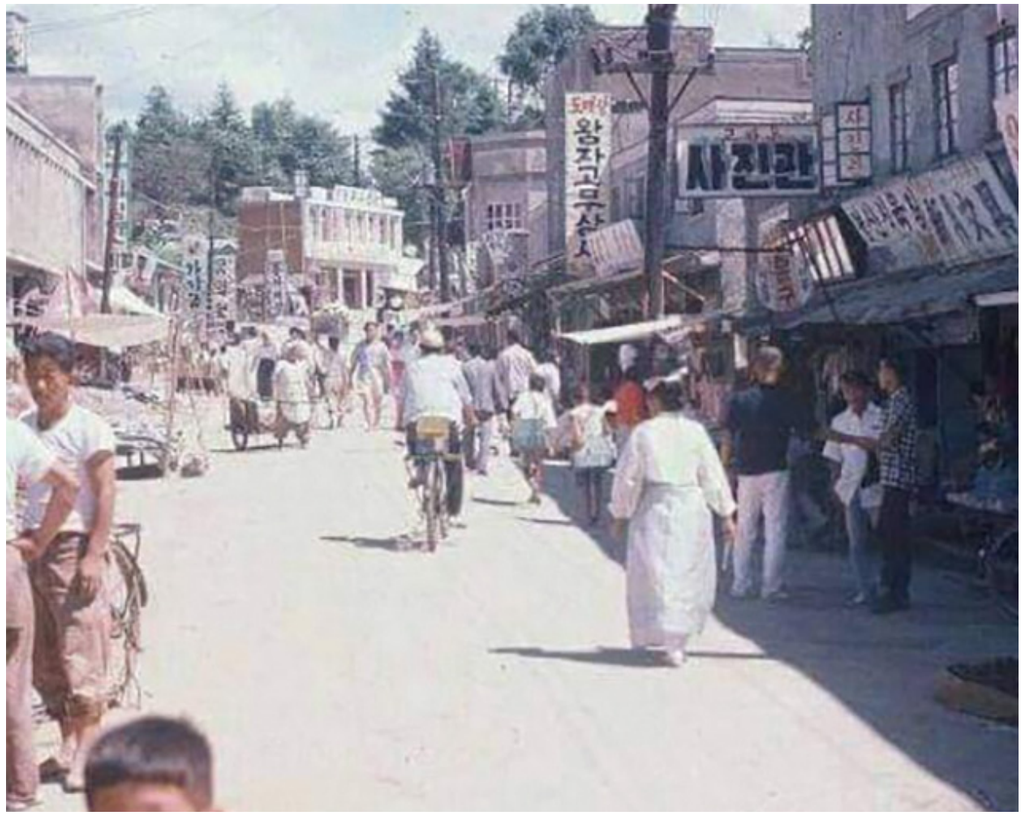
약사명동의 유래

약사명동은 춘천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사동은 본래 춘천군 부내면 지역이었다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9년에 '욱정, 대화정이정목' 등으로 개칭되었고, 1946년 일본식 동명을 바꿀 때 지금의 약사동, 죽림동, 중앙로로 정해졌습니다.
1998년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서 약사명동이 되었고 약사명동에는 약사동과 죽림동, 중앙로 2가, 중앙로 3가 등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대 (망대가 보이는 위치에서 해설)

춘천의 풍경을 한눈에 바로 볼 수 있어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 화재 감시용탑으로 사용된, 춘천 약사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 망대는 길을 잃은 피난민들에게 나침반이 되어 망대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판자촌이 집결한 도시 골목에는 불이 자주 났는데 이때 망대에서 사이렌이 울렸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춘천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이 '망대'를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 '망대'가 2014년에 만들어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기도 하고, KBS 춘천 방송국에서도 상영이 됐다고 하니, 이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



지금의 중앙시장에서 약사리 고개 방면을 바라본 사진으로,
사진의 좌측 끝에 죽림동 성당이 있습니다.

안내 시간 : 8분 내외

4 약사리 공유공간



<약사리 공유공간>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공폐가를 활용해 마을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전에 망대정이 있던 위치에 약사리 공유공간을 지어 공유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약사명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고서

해설 위치



운영 상황에 맞게 해설 위치 지정하여 진행해 주세요.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5분

장소 설명

춘천시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약사리 공유공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공폐가였던 장소를 새롭게 개조하여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배우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과거 망대정이 있던 곳으로 다른 곳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약사리 문화마을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망대는 사전적 의미로 적이나 주변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세운 높은 구조물로, 과거에는 화재 등 위급 상황을 확인하고 경고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약사리 공유공간에 독특한 장소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약사리 공유공간은 총 3층 건물로 1층은 마을카페, 2층은 전시와 체험공간, 3층은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에서는 마을 카페 교육 프로그램, 도예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약사리 공유공간은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주민역량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예체험뿐만 아니라 전시/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있으며, 서로 연결되고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잠시 공유공간을 둘러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분 뒤에 이 자리로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0분 뒤, 인원 확인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공유공간 내부 일정 확인 후, 공간 투어 가능 유무 사전에 확인 필요

안내 시간 : 5분 내외

5 박수근 출근길 + 망대골목 벽화길



<박수근>

박수근(1914~1965)의 삶과 예술은 한마디로 '서민화가'로 요약할 수 있다.
박수근은 사후에 더 유명해졌다는 점에서 이중섭과도 자주 비교가 되지만 박수근은
독학으로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하고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중섭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며
노상과 장터 등 가난하고 소박한 일상을 정감 있게 표현했다.

출처 : 미술백과

해설 위치



애니와투니 어린이집 지나서 바로 좌측 골목 시작점에서 해설해 주세요.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5분

장소 설명

망대골목 벽화길

지금부터 함께 걸으실 이 골목은 박수근 출근길을 따라 2015년 11월 약사명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의 '망대골목 벽화길 조성사업'으로 탄생한 벽화길로, 약 250m 가량이며 벽화의 테마는 약사명동 주민인 박근수 화가가 맡았습니다.

박수근 출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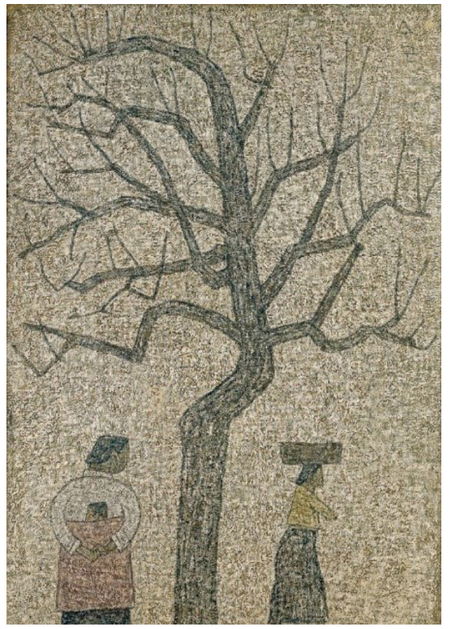
방금 드린 설명 중에 '박수근 출근길'이 뭘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박수근은 어렵고 고달픈 시절을 힘겹게 살다 간 대표적인 서민화가로, 그의 일대기 중 막노동을 하며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던 춘천에서의 출근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박수근은 6.25중 월남해 부두 노동자로 일하거나, 미군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불리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진 마음과 진실한 삶의 내면을 오롯이 담아내는 예술철학을 갖고, 일관성 있게 가난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했습니다.
박수근이 오늘날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의 화풍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독창성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해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 작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벽화 그림들을 구경하면서 박수근 출근길을 함께 걸어보실까요?

이동 설명은 늘어지지 않게 가볍게 해주세요.

사진 자료

박수근의 주요 작품



▲ 나무와 두 여인(1956)



▲ 아기업은 소녀(1953)

안내 시간 : 5분

6 약사천 산책로



<약사천 산책로>

효자동과 약사명동 사이에 있는 약사천은 과거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놀이터였는데, 1970년대 춘천 도심을 확장하면서 콘크리트로 덮였다가 이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옛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해설 위치



약사천 산책로로 내려온 후 상황에 맞는 위치에서 해설해 주세요.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5분

장소 설명

약사천 산책로

약사천은 약사명동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심 하천으로, 소양천과 합류하여 소양호로 이어지는 중요한 물길입니다. 과거 약사천은 도심 속 자연 하천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도시의 확장과 개발 과정에서 점차 복개되어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 묻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얼음골이라 하여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선풍기나 냉장고도 없던 시절, 시원한 바람과 물소리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장마철마다 홍수 피해를 입는 등 수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개 공사와 구조물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개 이후에도 수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사천은 도시재생 사업과 더불어 생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복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약사천은 수질 개선과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목표로 복개를 일부 철거하고 하천을 재생하였습니다.

현재 약사천은 주민들에게 바람과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춘천시 도시재생사업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던 하천이 이제는 대표적인 정서적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약사천 복개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곳에 풍물시장이 있었습니다.
복개 공사가 진행되며 풍물시장은 남춘천역 철도 하부 공간으로 이전하여 2, 7일마다 5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춘천의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780m 규모의 현대식 재래시장이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투어 마친 후 한번 구경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 시간 : 3분 내외

7 약사몽어



<약사몽어>

약사동에 흐르는 약사천은 약사명동의 지리적 자원으로, 약사천에서 살고있는 물고기를 약사몽어라 칭한다.

출처 :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해설 위치



약사몽어 안내판 앞에서 해설해 주세요.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5분

장소 설명

약사몽어

여러분 혹시, '몽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몽어'가 무슨 뜻일까요? (다양한 대답을 들으며)
약사동에 흐르는 약사천은 약사명동의 지리적 자원으로, 약사천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약사 '몽어'라 칭합니다.

투어 시작할 때 이야기드린 봉의산에 사는 봉황과 이어지는 이야기로,
봉황의 머리는 닭, 턱은 제비, 목은 뱀, 다리는 학, 꼬리는 물고기, 깃털은 원앙, 등은 거북, 발톱은 매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봉황의 꼬리가 되는 물고기가 약사천에 살았고 그 물고기는 약사명동 주민들의 소망과 꿈을 이어준다 해서 '약사몽어'라고 한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전설적으로 풀어 본 약사몽어와 더불어 실제로 약사천에 서식하는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드리자면,
약사천 산책로 복원 후에 약사천의 어류상을 조사한 결과, 5종 9과 1,250개체가 출현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얼록동사리, 참붕어, 피라미 등 다양한 토종 어류들이 다시 하천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원 작업은 하천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자연과 도심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사몽어와 더불어 약사천의 물고기를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해 약사천 산책로 벽면에 상징적으로 작업했다고 하니, 짧게 구경하시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소인 집수리도서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내 시간 : 10분 내외

8 마무리. 집수리도서관

체험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두시면 좋습니다.

체험 설명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돌아봤던 곳들의 스케치 그림이 그려진 엽서가 있습니다. 총 세 종류의 엽서 중 마음에 드는 장소의 엽서를 고르셔서 스케치 그림을 따라 5분 정도 간단하게 색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엽서와 색연필 나눠 드리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림 그리기 마무리해주세요. :)

어반 스케치 도안에 그림 그리기 체험 진행
준비물 스팟 그리기 엽서, 색연필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투어 코스가 즐거우셨나요?
춘천에 대해 잘 몰랐던 이야기, 재밌는 약사명동 스토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많은 마을 해설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어 중에 미숙했던 부분, 불편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리며, 저희 마을에는 다양한 해설사분들이 계시니 주변에 많은 분들께 약사명동 투어 코스에 대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팀 형태에 따라 투어 이후 구경할 곳 추천해 주셔도 좋아요.
예시 경서재, 육림고개 등

코스 2

테라코타길

• 컨셉

권진규의 테라코타 기법으로 주민들이 만든 작품 전시길

• 운영

권진규의 테라코타 기법을 통해 주민들이 만든 작품길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포함해 코스 운영

• 코스

① 집수리도서관 → ② 청년창업공간 → ③ 어울림플랫폼&어린이작업실 → ④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 → ⑤ 약사천 산책로→ ⑥ 약사리 고개 → ⑦ 약사리 공유공간

• 소요시간

1~1.5km 내외의 거리로 약 60분 소요 코스

• 코스 설명

춘천 출신인 근대 화가의 거장, 권진규의 테라코타 기법을 활용하여 약사명동 주민들이 테라코타 교육을 들으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코스는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공간과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들의 테라코타 작품을 감상하며 함께 걸어보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사명동 마을해설사 코스 지도



코스 2

① 집수리도서관 | ② 청년창업공간 | ③ 어울림플랫폼&어린이작업실

④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 | ⑤ 약사천 산책로 | ⑥ 약사리 고개

⑦ 약사리 공유공간

해당 코스는 역사적 장소를 돌아보기보단, 거점시설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해설을 하셔야 하는 코스이니 투어 전, 거점시설에 대한 정보를 최신화하신 후 해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시작. 집수리도서관

대기

개인 물 전달하면서 스몰토크 가볍게 진행하기
(거주 지역, 오는 길, 계절, 춘천에 대한 인상 등)

첫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약사명동 투어를 안내할 OOO입니다.
저와 함께할 코스는 테라코타길 코스로, 약사명동 일대를 직접 걸어보며 권진규의 테라코타 기법을 활용해 주민들이 만든 작품을 살펴보고, 실제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운영되는 곳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스 설명

권진규와 테라코타길

권진규와 테라코타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진규는 박수근, 이중섭과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장이라 평가받는 작가이며, 춘천초등학교 출신으로, 춘천에 5년 동안 하숙하며 살았던 집이 약사명동 내에 있습니다.
약사명동 주민들은 권진규의 작업 기법 중 하나인 구운 흙을 뜻하는 테라코타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어진 거점시설과, 마을 골목골목에 다양한 형태의 테라코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 1차로 만들어진 테라코타 작품이 156점, 2차로 만들어진 작품이 463점이라고 하니, 함께 투어하시면서 테라코타 작품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리플렛을 보며 소개해주세요.

코스 안내

구체적인 코스는 집수리도서관에서 출발하여 청년창업공간, 어울림플랫폼과 어린이작업실,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를 지나, 약사리 고개길, 약사리 공유공간까지 둘러보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0분이니,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은 미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인원 확인 후 해설 시작)

늘어지지 않도록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준비물 **코스 리플렛, 물**

안내 시간 : 5분 내외

1 집수리도서관



<집수리도서관>

약사명동 도시재생을 통해
'녹색디자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통해 노후된 집들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수리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관련 공구 대여 및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곳이다.
집수리도서관은 1층에 다목적실과 탕비실, 2층에 교육공간과 공구 대여소,
3층은 사무실이 자리 잡을 예정이다.

출처 : 약사명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고서

해설 위치



집수리도서관 폴딩도어 앞쪽 잔디밭에서 시작해 나무 데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해설해 주세요.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7분

장소 설명

저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곳은, '녹색디자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집수리도서관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통한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택정비를 통해 노후된 집들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집수리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관련 공구 대여 및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곳이 여기, 집수리도서관입니다.

집수리도서관 골목(죽림동 성당 가는 쪽 골목)으로 나오면 망대가 보입니다.
춘천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 화재 감시용탑으로 사용된, 춘천 약사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 망대는 길을 잃은 피난민들에게 나침반이 되어 망대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판자촌이 집결한 도시 골목에는 불이 자주 났는데 이때 망대에서 사이렌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 골목에서 망대를 바로 볼 수 있어서 나무 데크 왼쪽에 망대 작품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테라코타 작품 안내)

다음 장소인 청년창업공간으로 함께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동 안내

약사명동은 골목이 좁고, 가파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많은 동네이니 이동하실 때 빠르게 걷거나 뛰지 마시고, 안내에 맞춰 함께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 설명은 늘어지지 않게 가볍게 해주세요,
주변 자동차 주의 안내

안내 시간 : 3분 내외

2 청년창업공간



<청년창업공간>

청년창업공간은 주목적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해 주는 공간 외에 육림고개 관광객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다목적 공간, 옥상정원을 계획하여 만들어졌다.

준공 이후, 춘천시의 일자리 지원센터가 청년창업공간 건물에 들어오면서 육림고개 일원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재생과 일자리 지원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출처 : 약사리 문화마을 카페 및 연합뉴스

해설 위치



주차장 옆쪽 데크에서 해설해 주세요.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5분

장소 설명

청년창업공간은 육림고개 정상부에 위치하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청년창업지원과 육림고개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지은 건물입니다.
2023년 6월에 준공되어 지하 1층은 공중화장실, 1층은 관리사무소, 2층은 청년교육공간, 3층은 청년창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층과 3층은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으로 다양한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창업플랫폼 조성을 통해, 지역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청년몰 조성 사업과 연계해 상권활성화와 도시재생 스타트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해설해 주세요.

이동 안내

어울림플랫폼으로 가는 계단이 좁고 가파르니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해설 외 설명

육림고개

육림고개는 1967년 개장한 육림극장의 이름을 인용해 명명된 고개로 육림극장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육림고개라고 부릅니다.
춘천의 번화가로 다양한 노점들이 즐비했던 이 거리는 전통시장의 쇠퇴와 육림극장의 종료로 인해 급격한 상권의 내리막을 걷다가 도시재생사업의 '청년몰 및 마을탐방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모되었습니다.
노후된 육림고개 상가들의 간판을 바꾸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약 350m 가량의 육림고개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육림고개 특화거리가 조성되며 육림고개에 갖가지 축제와 행사들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화거리 내에 위치한 한방 찻집 '카페 처방전'과 로컬 식재료를 활용해 요리하는 '어쩌다농부'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는 육림고개의 대표 상점이니 투어 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들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 시간 : 5분

3 어울림플랫폼 + 어린이작업실



▲ 어린이작업실 전면 사진

<어울림플랫폼>

어린이작업실과 어울림플랫폼은 춘천교육지원청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2019년 춘천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층은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2,3층은 춘천문화재단이 운영 예정이다.

<어린이작업실>

어린이작업실은 춘천교육지원청의 별관회의실로 사용되던 건물로, 2021년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현재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 약사명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고서

해설 위치



* 어울림플랫폼 현재 공사 중으로, 조감도로 대체함.

어울림플랫폼 앞이나 안쪽으로 들어가 해설해 주세요.

장소 설명

어울림플랫폼

이 공간은 이전에 춘천 교육지원청이 있던 공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2019년 춘천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물의
1층은 약사명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3층은 춘천문화재단이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활동공간, 지원공간, 교류공간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춘천 문화예술교육센터로 조성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통해서 여러 문화 활동이 운영되며, 향후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예술적, 사회적 감각을 깨우는 예술교육 전용공간이 되어
문화예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작업실

어울림플랫폼에서 나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단층 건물은
어린이작업실입니다.
어린이작업실은 어린이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돌봄 프로그램과
주민공모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현재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마관협의 사무국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작업실에서는 어린이 예술 작업실, 어린이 건축학교 등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청소년 같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작업들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테라코타 작품 설치 위치 안내)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7분

이동 안내

내리막길 주의해서 인솔해 주세요.

이동 설명

골목 조성 사업 + 담장 정비 사업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이 골목길을 보시면 길과 담장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죠?
도시재생 사업 중 골목길 정비사업과 담장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된 경사로와
담장들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골목이 많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많으며 노후된 건축물이 많은
약사명동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환경
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정비되었습니다.
보안등과 CCTV도 성능 개선을 시키고 신규로 설치를 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을 안전히 지켜줄 수 있는 장치들은 주민들과의 회의를 통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테라코타 작품

마을 주민들이 만든 테라코타 작품이 많이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둘러보면서 이동하실까요?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 가는 내리막길에 설치된 테라코타 안내)

안내 시간 : 10분

4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는 2018년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공모 선정되었고, 2023년 9월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개 층의 규모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전시판매공간,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 약사명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고서

해설 위치



상황에 맞게 위치 설정하여 해설해 주세요.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5분

장소 설명

낭만마을 수공업팩토리는 지역 주민 주도의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며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준공되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총 3개 층의 규모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전시 판매공간,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과 동시에 춘천사회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 공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춘천 로컬브랜딩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약사천 주민들과 춘천의 로컬 메이커들이 모여 함께 상품을 제작하고 컨설팅, 교육, 피드백을 통해 약사동만의 고유 브랜드와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2월에는 한 달 동안 수공업팩토리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선보였으며,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생활권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관처는 행정안전부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강원도 춘천이 선정되어 2023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40여 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할 만큼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춘천은 '영감의 물길이 흐르는 도심 속 로컬 작업장, 약사천'을 주제로 약사천 인근 원도심의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도심 속 로컬 작업장을 조성하고 춘천 고유의 창의적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메이드 바이 약사천>이라는 컨셉을 통해, 약사천의 장소성을 담은 다양한 상품이 제작되었습니다.
1) 감자와 쌍화를 블랜딩한 로컬 크래프트 맥주
2) 춘천 생태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밀랍초와 지비츠
3) 도마, 코스터, 트레이 등 환경에 좋은 목공 생활용품
4) 한약재를 활용한 비누와 천연오일
5) 자연재료와 약사천의 이미지를 담은 쿠키세트

이름만 봐도 구매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마을 브랜드를 구축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로컬 브랜드 기업들은 효능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종종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니 자주 방문해 주세요.

외부 벽면 테라코타

코스 시작할 때 짧게 설명드린 권진규 작가에 대해 덧붙여 설명드리면,
한국의 근대 3대 작가는 권진규, 박수근, 이중섭이며 그중 권진규만이 회화가 아닌 조소로 그의 작품과 족적을 남겼는데요.
함경남도 함흥, 부유한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공기 좋은 곳에서 공부하라는 부모의 뜻을 따라 1938년부터 1943년까지 5년간 약사명동에 거주하며 춘천공립중학교(현 춘천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미술을 접한 권진규는 밀입국해 서울에 정착했다가 광복 후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조각과에 입학하여 활동을 했고, 다시 귀국하여 성북구에 아틀리에를 짓고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작품은 조명 받기 시작했고, 성북구의 아틀리에는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권진규 서거 50주년을 기념해 권진규의 테라코타 기법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테라코타 작품을 만들었고, 보시는 이 작품은 권진규의 형상과 그의 상징적인 작품을 한 틀에 담아 재구성하여 장회준 작가가 제작했습니다.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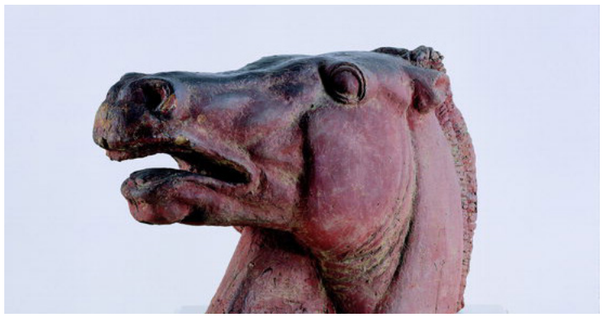
권진규와 그의 주요 작품



▲ 권진규 (1922~1973)



▲ 가사를 걸친 자소상 (1969~70)



▲ 말 (1969)

안내 시간 : 3분 내외

5 약사천 산책로



<약사천 산책로>

효자동과 약사명동 사이에 있는 약사천은 과거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놀이터였는데, 1970년대 춘천 도심을 확장하면서 콘크리트로 덮였다가 이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옛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해설 위치



산책로쪽에서 해설해 주세요.

장소 설명

약사천 산책로

약사천은 약사명동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심 하천으로, 소양천과 합류하여 소양호로 이어지는 중요한 물길입니다. 과거 약사천은 도심 속 자연 하천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도시의 확장과 개발 과정에서 점차 복개되어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 묻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얼음골이라 하여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선풍기나 냉장고도 없던 시절, 시원한 바람과 물소리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장마철마다 홍수 피해를 입는 등 수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개 공사와 구조물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개 이후에도 수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사천은 도시재생 사업과 더불어 생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복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약사천은 수질 개선과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목표로 복개를 일부 철거하고 하천을 재생하였습니다.

현재 약사천은 주민들에게 바람과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춘천시 도시재생사업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던 하천이 이제는 대표적인 정서적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약사천 복개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곳에 풍물시장이 있었습니다.
복개 공사가 진행되며 풍물시장은 남춘천역 철도 하부 공간으로 이전하여 2, 7일마다 5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춘천의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780m 규모의 현대식 재래시장이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투어 마친 후 한번 구경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3분

이동 설명

봄에는 약사천 양옆으로 벚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산책로가 됩니다.

해설 외 설명

약사천 어종

약사천 복원 후 약사천의 어류상을 조사한 결과, 5종 9과 1,250개체가 출현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얼록동사리, 참붕어, 피라미 등 다양한 토종 어류들이 다시 하천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원 작업은 하천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자연과 도심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생태적 복원이 진행된다면 약사천은 더욱 많은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선한 가을, 약사천 일대를 산책하며 자연과 함께 일상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다 보면 소양호에서 마실 나온 어종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서재

해당 공간은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로, 잘 정돈된 약사천 산책로를 따라 멋스럽게 자리 잡은 공간입니다.
안쪽이 궁금하시거나, 약사천을 뷰로 평온하게 음료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투어가 끝난 후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 시간 : 3분 내외

6 약사리 고개



<약사리 고개>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에서 죽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조선 시대로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 고개의 우측에 한약사들이 길을 따라 한약방을 열고 있었던 까닭에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되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약사동에서 죽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금은 2차선 도로가 나있다. 조양동의 마가리고개, 소양로의 사창고개와 함께 춘천의 유명한 고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

해설 위치



성 골롬반 의원 기념비 부근 공원에서 해설해 주세요.

다음 장소 이동 시간 : 7분

장소 설명

약사명동의 대표 명소인 약사리 고개는 춘천시의 약사동에서 죽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약사리 명칭은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 고개의 우측(죽림동 성당 건너편)에 한약사들이 길을 따라 한약방을 열어 약사원으로 불리기 시작했던 것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약사원으로 이름 불려지는 것을 시초로, 이 동네는 약사원, 약사리, 약사동, 약사명동으로 이름이 계속해 바뀌어 왔습니다.

현재는 이 고개가 2차선으로 도로가 나 있어 동네 골목의 고개라는 느낌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조양동의 마가리고개와 소양로의 사창고개와 함께 춘천의 유명한 고개였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인 약사리 공유공간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마을 이야기를 추가해 더 풍성한 해설을 이어가 주세요.
신호등, 오르막길 조심하도록 주의 안내 !

이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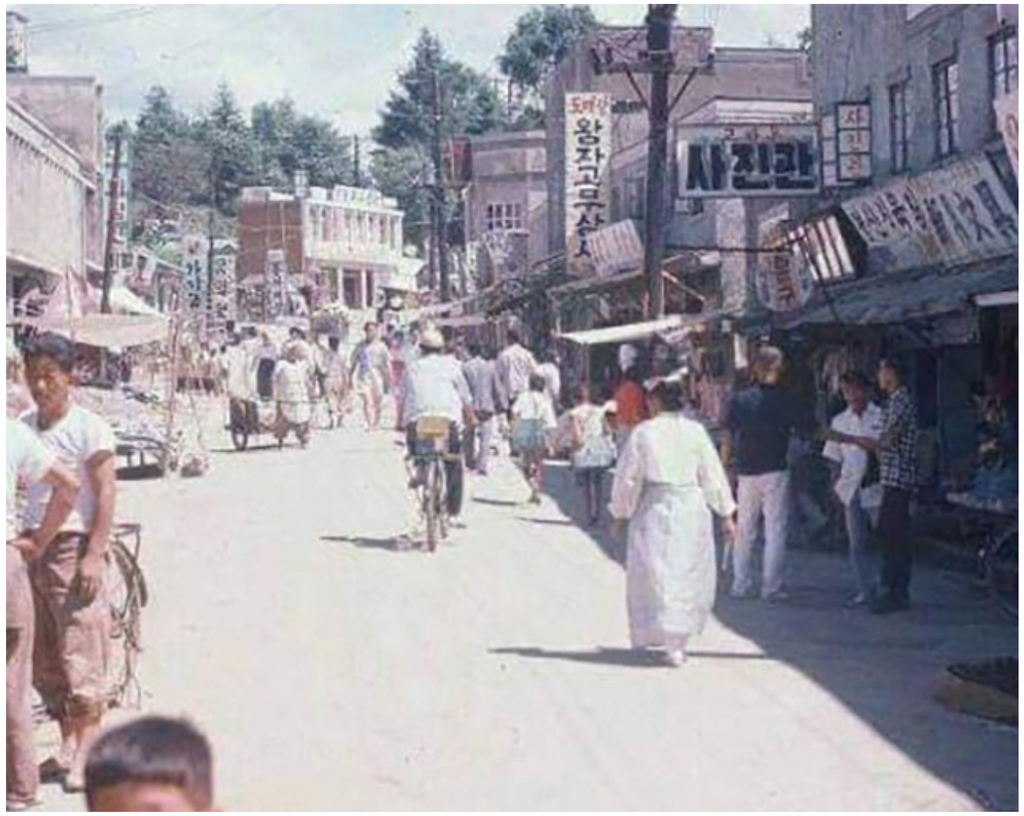
약사리 공유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해 횡단보도도 건너고 오르막길도 올라야 하니, 안전히 보행해 주세요.

해설 외 설명

약사명동의 유래

약사명동은 춘천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사동은 본래 춘천군 부내면 지역이었다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9년에 '욱정, 대화정이정목' 등으로 개칭되었고, 1946년 일본식 동명을 바꿀 때 지금의 약사동, 죽림동, 중앙로로 정해졌습니다.
1998년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서 약사명동이 되었고 약사명동에는 약사동과 죽림동, 중앙로 2가, 중앙로 3가 등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



지금의 중앙시장에서 약사리 고개 방면을 바라본 사진으로,
사진의 좌측 끝에 죽림동 성당이 있습니다.

안내 시간 : 10분 내외

7 약사리 공유공간



<약사리 공유공간>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공폐가를 활용해 마을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전에 망대정이 있던 위치에 약사리 공유공간을 지어 공유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약사명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고서

해설 위치



운영 상황에 맞게 해설 위치 지정하여 진행해 주세요.

해설 시간 : 3분

장소 설명

춘천시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약사리 공유공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공폐가였던 장소를 새롭게 개조하여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배우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과거 망대정이 있던 곳으로 다른 곳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약사리 문화마을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망대는 사전적 의미로 적이나 주변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세운 높은 구조물로, 과거에는 화재 등 위급 상황을 확인하고 경고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약사리 공유공간에 독특한 장소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약사리 공유공간은 총 3층 건물로 1층은 마을카페, 2층은 전시와 체험공간, 3층은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에서는 마을 카페 교육 프로그램, 도예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약사리 공유공간은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주민역량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예체험뿐만 아니라 전시/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있으며, 서로 연결되고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공유공간 내부 일정 확인 후, 공간 투어 가능 유무 사전에 확인 필요

체험 시간 : 7분 내외

8 마무리. 약사리 공유공간

체험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두시면 좋습니다.

체험 설명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돌아봤던 곳들의 스케치 그림이 그려진 엽서가 있습니다. 총 세 종류의 엽서 중 마음에 드는 장소의 엽서를 고르셔서 스케치 그림을 따라 5분 정도 간단하게 색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엽서와 색연필 나눠 드리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림 그리기 마무리해주세요. :)

어반 스케치 도안에 그림 그리기 체험 진행
준비물 스팟 그리기 엽서, 색연필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투어 코스가 즐거우셨나요?
춘천에 대해 잘 몰랐던 이야기, 재밌는 약사명동 스토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많은 마을 해설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어 중에 미숙했던 부분, 불편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리며, 저희 마을에는 다양한 해설사분들이 계시니 주변에 많은 분들께 약사명동 투어 코스에 대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팀 형태에 따라 투어 이후 구경할 곳 추천해주셔도 좋아요.
예시 경서재, 육림고개 등